***PRESS INFORMATION***

|  |  |
| --- | --- |
| **보도 일시** | **2025. 10. 24 배포 시부터 보도** |
| **사진 설명** | **LS빌드윈 CI** |
| **문의** | **주호찬 차장 (010-8553-7904 ,** [**hjoo3@lscns.com**](mailto:hjoo3@lscns.com)**) / 뉴스룸(**[**http://news.lscns.com**](http://news.lscns.com)**)** |
| **LS빌드윈, 싱가포르 800억 규모 초고압 시공 프로젝트 수행**  **■ 동남아 초고압 전력망 수주 확대, 해외 포트폴리오 성장**  **■ LS전선·LS마린솔루션과 제조–시공 전문성 강화**  **■ LS마린솔루션 수주잔고 7천억 돌파, 성장세 지속**  LS마린솔루션(대표 김병옥)은 자회사 LS빌드윈이 싱가포르에서 약 8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지중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LS전선–LS빌드윈 협력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해외 프로젝트로, 전력망 밸류체인의 해외 확장세를 보여준다.  이 사업은 LS전선이 주계약자로 수주한 230kV급 지중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로, LS빌드윈이 케이블 시공 전 과정을 담당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추진하는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의 일환이다.  LS전선은 케이블 제조를, LS빌드윈과 LS마린솔루션은 각각 지중과 해저 시공을 맡으며, 세 회사는 ‘제조–시공 밸류체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LS마린솔루션은 현재 약 7,000억 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해 전년 매출의 5배에 달하는 일감을 확보했다.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LS마린솔루션은 국내 유일의 해저·지중 케이블 시공 전문기업으로, LS전선과 협업을 통해 통합 시공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S마린솔루션은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884억 원을 달성했다. 회사는 국내 해상풍력 확대와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사업 본격화에 따른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 | |